개혁주의와 고신신학

-개혁주의 세계건설을 위한 고신신학의 과제-

이환봉 교수

1.시작하는 말 : 개혁주의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에 기초한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학과 생활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하나의 통일된 전 포괄적인 사상체계"(a unified all-comprehensive system of thought)이다.[1] 일반적으로 개혁주의는 칼빈과 그의 추종자들이 추구하는 교회의 신학적 체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교회의 신학과 신앙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교육, 예술 등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상체계이다. 다시 말하자면 단순히 개인과 교회의 구원론적 의미만을 갖는 편협한 종교적 체계가 아니라 인간 삶의 모든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포괄적인 삶의 체계(life-system)라고 할 수 있다. 이근삼 박사도 "개혁주의 전통의 중추적 관심은 개인과 그의 구원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능가하고, 궁극적으로 그 관심과 소망은 국가의 문화, 자연과 우주의 넓은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2] 이처럼 칼빈주의적 사상과 삶의 체계가 개인 신자와 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이라는 확신은 개혁주의 신학자들 뿐 아니라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들 속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따라서 개혁주의는 교회와 세상,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이원적 사상구조들을 배격하고 항상 모든 것을 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두고 있다.

고신신학은 바로 이 개혁주의 신학과 사상을 따라 고려신학교를 중심한 고신교회를 형성하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개혁주의 신학의 이상이며 자연스러운 열매로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독교적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대학인 고신대학교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 안에만 묶어두려고 하는 교회 지상주의자들의 근시안적이며 이기적인 발상이 교회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혁주의의 원대한 비전을 상실케 하고 개혁주의 사상을 단순히 신조적 또는 신학적 정통주의에 대한 축소된 관심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특별히 고신대학교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고신신학의 개혁주의적 특성과 신학적 실천을 살펴봄으로써 고신이 계속하여 감당해야 할 개혁주의 세계건설을 위한 신학적 과제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2. 고신신학의 뿌리

고신신학의 뿌리는 고려신학교의 설립 목적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고려신학교의 설립 목적은 한국 장로교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장로교회의 초창기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상당수가 당시 북미 개혁주의 신학의 보루였던 프린스톤 신학교(Princeton Seminary)의 출신들이었다. 19세기 말의 프린스톤 신학교는 Charles Hodge(1707-1878)와 Benjamin B. Warfield(1851-1921) 그리고 Gresham Machen(1881-1937) 등의 유수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가르치고 있었다. 특히 평양신학교를 세우고 23년간을 교장으로 가르친 마포삼열

---

1)H. M. Meeter,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Grand Rapids: Baker, 1990), p.27. 본 논문에서는 개혁주의와 역사적 칼빈주의를 동일한 의미의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2)이근삼, 「개혁주의 신앙과 문화」 (서울: 도서출판 영문, 1991), pp.96-99.

(Samuel Moffet) 박사와 곽안련(Allen Clark)은 바로 이 프린스톤 출신의 철저한 개혁주의자들이었다. 이처럼 평양신학교를 중심한 초기 한국교회의 신학과 신앙은 전통 개혁주의 신학의 노선에 굳게 서서 빠른 속도로 놀라운 성장을 이룩해 갔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1930년대에 이르러 안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에 의하여 혼란에 빠져들어 가기 시작하였고, 밖으로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라는 무서운 탄압에 직면하는 최대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1938년에는 제27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결의하게 되었고 마침내 일제의 탄압으로 평양신학교는 폐교 당할 수밖에 없었다. 1940년에는 김재준을 중심한 조선신학교가 설립되어 제28회 총회의 허락을 받고 점차 성경의 무오성을 거부하는 등 평양신학교와의 신학적 단절을 공개적으로 표방하면서 그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이러한 신학적 혼란과 어두움을 이용하여 일제시대의 변절자들은 한국교회의 신사참배의 죄에 대한 공적인 인정과 참회의 길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가고 있었다. 자유주의 신학운동을 등에 업은 교권주의자들은 참된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위해 회개를 외치던 주의 종들을 오히려 배척하고 탄압하였을 뿐 아니라 결국 한국교회의 정화와 재건의 길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려고 하였다. 허순길 박사는 당시 이러한 한국 교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마귀의 책략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자만과 교권이 주의 교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는 없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왕이신 주님은 이 종들을 붙드시고 개혁주의 한국교회의 재건과 개혁의 길을 여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고려신학교는 출옥 성도인 한상동, 주남선 목사를 중심으로 1946년 9월 20일 부산에 설립되었다. 이근삼 박사는 고려신학교의 설립 이념과 목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 고려신학교는 일제시대에 잘못 나간 한국교회의 신앙을 정화하여 교회를 새롭게 재건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바른 신학을 가르쳐서, 진리 파수와 교회 건설을 위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할 목적으로, 성경을 토대로 한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과 생활의 순결에 강조점을 두고 시작한 학교이다.... 이 학교를 창설한 설립자들은 이미 그 신학과 생활을 몸으로 체험한 분들이었다.

고려신학교는 일제하의 신사참배의 죄과에 대한 공적인 회개와 청산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새롭게 재건하는 것과 평양신학교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는 정통 개혁주의 신학교육을 통하여 참된 교역자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특히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과 생활의 순결을 새롭게 확립하는 것이 고신신학의 강조점과 특성이었다. 그래서 1942년 10월 16일에 있었던 고신교단의 출발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노회의 발회식 선포문에도 “개혁주의”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강조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3] 이것은 “개혁주의”가 고신의 신학과 신앙의 확고한 노선임을 분명히 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고려신학교는 개혁주의 신학의 확립과 한국교회 재건에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박윤선 박사를 교수로 그리고 얼마 후 박형룡 박사를 초대 교장으로 영입하였다. 박형룡 박사는 1923년 미국 프린스톤 신학교에서 Machen의 신학적 감화를 받았고 귀국한 후 1931년 평양신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당시에 한국 장로교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 자유주의 신학사상을 규명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리고 한국 자유주의 신학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신학교의 김재준 교수의 신학적 비

3)오병세, “고려파 신학이란 무엇인가?” 「월간고신」 (1983.8),p.17.

정통성을 신랄하게 비평하였다. 해방 이후에 고려신학교가 한국교회의 보수주의를 지도하고 대변하는 대표적 신학자로 인정받았던 박형룡 박사를 먼저 적극적으로 영입하려고 한 것은 평양신학교의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재확립하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재건하려던 분명한 목적과 결단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박형룡 박사는 고려신학교 교장 취임 이후에 설립자 한상동 목사와 신학교의 운영 방침과 당시 한국 교회가 처한 신학적 그리고 신앙적 현실을 바라보는 인식에 있어서 건널 수 없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었다.[4] 결국 박형룡 박사의 한국 장로교회에 대한 신학적 영향은 계속 지대한 것이었으나 그는 불과 6개월 간(1947,10 ~ 1948,4)의 고려신학교 교장직을 사임하고 서울로 떠나고 말았기 때문에 고려신학교에서의 그의 신학교육과 신학적 영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사실상 초창기 고신신학의 개혁주의적 토대를 실제적으로 제공한 신학자는 박윤선 박사이다. 박윤선 박사는 고려신학교 설립의 직접적 계기를 마련한 1946년 6월 부터 8월 까지 3개월 간의 진해 하기신학강좌를 개설한 이후부터 계속 1960년 10월 까지 약 15년 동안 고려신학교의 교수와 교장으로서 개혁주의 신학교육에 전력을 다하였다. 박윤선 박사는 Gresham Machen과 Cornelius Van Til을 중심으로 프린스톤 신학교 구학파의 전통을 계승하고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을 접목하기 위하여 설립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수학하였다. 제1차 유학(1934-1936)에서는 Machen 밑에서 구 프린스톤의 전통과 신학 연구에 주력하였고, 제2차 유학(1938-1940)에서는 Cornelius Van Til 밑에서 화란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과 Abraham Kuyper의 사상에 기초한 전제주의적 변증학을 섭렵함으로써 개혁주의 신학 유산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박윤선은 1953년 10월 부터 1954년 3월까지 화란의 자유대학교에 가서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들 즉 Herman Bavinck, Abraham Kuyper, F.W. Grosheide, K. Schilder 등의 신학들을 직접 연구하면서 깊은 신학적 영향을 받았다.[5] 이러한 교육적 배경 속에서 박윤선 박사는 프린스톤 구학파 신학의 전통과 화란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보다 더 발전적으로 통합하려고 하였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풍요한 개혁주의 유산을 고려신학교의 신학교육에 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6]

구 프린스톤 신학자들과 화란 개혁주의 신학자들 사이에 분명한 신학적 차이점들이 있었다. 구

---

4)박종칠, “고려파 정신사”, 「이근삼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p.132: 일제 박해하의 약 8년을 만주에 있다가 돌아온 박형룡의 첫 귀국소감에 해방 후의 한국교회의 현실을 단순히 “전후 피곤”으로만 거듭하여 언급한 것은 그동안 국내에서 일제의 신앙적 탄압 속에서도 일체의 신앙적 타협을 거부해 온 한국교회의 순교적 투쟁과 희생, 그리고 내적 갈등과 혼란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으며, 전도를 위한 “성경적 복음적 신학교육” 만을 강조한 것은 당시 교회 안의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순수한 개혁주의 신학을 파수하려고 하였던 교회의 뜨거운 열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진다. 얼마 후에 발생한 두 지도자의 견해 차이는 단순히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과 어떤 방법상의 차이만은 아니었다. 해방 이후의 정통 신학과 신앙의 심각한 위기와 혼란의 상황 속에서 순수한 개혁주의 신학과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 긴박한 신학적 투쟁과 교회의 영적 갱신운동을 이끌어 가려던 고려신학교는 당시의 자유주의신학자들과 결탁한 총회 교권주의자들과 함께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하는 외국 선교부들과의 합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사실상 이것은 단순히 현실 이해의 차이만이 아닌 신앙노선 상의 원리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5)차영배,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신학과 한국신학”, 「개혁사상」 (1989, 창간호), p.80: H. Bavinck의 신학적 영향에 있어 박형룡은 Bavinck의 개혁주의 교의학(Gereformeerde Dogmatiek)에 기초한 L. Berkhof의 「조직신학」 (Systematic Theology)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박윤선은 직접 읽고 접함으로 영향을 입었다. 특히 박윤선 박사는 그의 성경주석(20여권)에 Bavinck를 80회 이상 인용하고 있다.

6)박용규, 한국교회사 강의안,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pp.114-115. 이러한 C. Hodge와 B. B. Warfield 같은 구 프린스톤 신학자들의 전통을 따라 박형룡 박사는 물론 타락한 인간이성의 한계에 유의하고는 있으나 인간 이성의 합리적 논증들인 본체론적 신존재증명과 우주론적 신존재증명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표명하였고 인간 이성을 신학의 종속적인 내적원리(*princium*)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박형룡은 변증학에 대한 과도한 평가에 유의하고는 있으나 변증학을 모든 신학과목의 선두에 두려고 한 B. B. Warfield의 그 기본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 cf. 박형룡, 「교의신학 신론」 (서울: 보수신학서적 간행회, 1967), pp.32-40; 박형룡, 「박형룡박사 저작전집 I: 교의신학 서론」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7), pp.169-170, 182-183; cf. 차영배, “이성의 위치”, 「신학지남」, 51/1-2 (1984, 봄, 여름), pp.37-72.

프린스톤 신학은 스코틀랜드의 보편 실재론(the Scottish Common Sense Realism)의 영향으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지나친 신뢰에 기초하여 기독교를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논리적 체계로 보았다. 따라서 변증학은 조직신학에 선행하여 연구해야만 하는 신학자들의 최우선적인 사명으로 이해되었다.[7] 그러나 Abraham Kuyper와 Herman Bavinck와 같은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중립적인 이성의 기능 또는 이성의 중립적 입지는 존재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세계관도 엄격히 이성에 기초하여 그 우월성을 다른 것에 확신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변증학이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결정하는 조직신학에 부속되어야 하며 변증학은 신학자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분야로 이해하였다.[8]

이러한 구 프린스톤 신학과 화란 개혁주의 신학 사이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두 신학의 유산을 보다 발전적으로 상호 접목시키기 위하여 1929년 미국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통합은 화란계 미국인으로서 프린스톤 신학교의 학생과 교수를 거쳐 1979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변증학 교수로 합류한 Cornelius Van Til에게서 가장 훌륭하게 이루어졌다. Cornelius Van Til은 Abraham Kuyper와 Herman Bavinck의 작품들을 읽으면서 변증학에 있어서는 인간의 이성 또는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생각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할 수 없다는 자신의 처음 입장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리고 변증학과 조직신학의 관계에 대하여 원리적으로는 Kuyper와 Bavinck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조직신학은 변증학적 요소를 지녀야 하고 변증학은 조직신학을 상술해야 한다는 두 학과목의 상호의존의 관계를 강조하였다.[9]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이러한 Cornelius Van Til의 노력은 한국 고려신학교에서의 박윤선 박사의 노력에서 잘 나타났다.

박윤선 박사는 인간의 이성에 미치는 죄의 영향을 축소시키는 프린스톤의 경향을 경계하면서 인간 이성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철저하게 부정하였고, 신학이 진리를 찾는 일에 있어서 철학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철학과 협력하는 행위는 단호히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조직신학을 변증학의 철학적 논증을 통하여 확립한 신학적 전제들 위에 세울 수 없다는 Abraham Kuyper와 Herman Bavinck의 입장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기록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철저한 칼빈주의적 "계시 의존의 사색"을 강조하였다.[10]

박윤선 박사는 "근본주의"에 대한 이해에 있어 구 프린스톤의 전통에만 충실하였던 박형룡 박사와 견해를 달리하였다. 평소에 "정통주의" 또는 "근본주의"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던 박형룡 박사가 "근본주의 신앙"과 "근본주의"라는 논문을 발표한 2년이 지난 1964년에 박윤선 박사는 "근본주의의 약점"이라는 논문을 통해 근본주의에 대한 부정적 비판을 가함으로써 박형룡 박사와의

---

7)James D. Bratt,"화란 개혁주의 학파," 「웨스트민스터 신학과 화란 개혁주의」 (ed. P. Wells, 서울 : 엠마오.1992), pp.127.

8)G. M. Marsden,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 : The Shaping of Twentieth Century Evangelicalism,* 1870-1925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pp.114-116 ; John Vander Stelt, *Philosophy and Scripture : A Study in Old Princeton and Westminster Theology* (Marlton, NJ : Mack Pub. Co., 1978).

9) Cornelius Van Til, *In Defense of the Faith vol. V. : An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Philadelphia :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974, pp.2-4.

10)박윤선, "우리의 성경," 「신학지남」 34/2 (1967,6), pp.5-13. 여기서의 "사색"은 계시에 철저하게 의존하기에 사변신학과 헤겔의 사색과는 전혀 무관한 "상고"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Cf. 차영배,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신학과 한국신학", p.75: 박윤선의 이러한 입장은 Augustine과 Calvin보다 더 강한 반자유주의자(Anti-Naturalist)인 Herman Bavinck의 인간관 즉 인간의 전적 부패의 교리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보민, "고신신학의 뿌리", 「월간고신」 (1986,9), pp.29-30: 전적 타락의 교리에 있어 어거스틴에게서는 신플라톤주의적 죄악관을, 칼빈에게서는 인문주의적 인간관에 의한 모호성을 약간 엿볼 수 있으나 바빙크에게서는 일관된 성경적 이해가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바빙크적인 신학은 보다 더 발전적인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한 신학적 견해차가 있음을 밝혔다. 근본주의 보다 개혁주의라는 말을 즐겨 사용한 박윤선 박사는 근본주의가 반자연주의에서 또 다른 한 극단인 초자연주의로 기울어짐으로서 영육 이원론의 경건주의에로 흐르고 그 결과 자연은총의 영역을 평가 절하하여 반문화적 태도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11] 사실 구 프린스톤 Machen의 정통주의를 근본주의 신앙으로 이해하였던 박형룡 박사의 신학은 문화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 역사의식이 부족하였고 결과적으로 한국교회에 반문화주의적 사상을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12]

프린스톤 신학교의 Machen은 문화개혁을 주로 "사상의 전 영역"에 한정했으나 화란 개혁주의 신학자 Abraham Kuyper는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13] 따라서 미국 프린스톤의 한계를 극복하고 화란의 개혁주의 전통에 충실하려고 하였던 박윤선 박사도 개혁주의를 단순히 어떤 신학과 사상의 체계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전 삶의 체계로서 이해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간 삶의 전 영역에서 추구해야 한다는 개혁주의의 원리를 따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의「면려청년」지에 "칼빈주의와 문화"(1950.3.1), "칼빈주의와 국가"(1950.4), "정권의 요동에 대하여"(1950.5.21.과 6.25), "칼빈주의와 전쟁"(1951.7.10)등의 글을 발표하였다.[14] 그리고 고려신학교의 잡지인「파수군」에도 "칼빈주의에서 본 교회와 국가"(1952.11), "칼빈주의 신자와 문화 건설"(1953.8), "칼빈주의와 정치"(1953.10)라는 글들을 통하여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주인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개혁주의의 원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15] 사실상 이 글들은 한국인으로서 칼빈주의를 본격적으로 연구 발표한 처음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16] 해방 후 한국 장로교 보수신학의 가장 훌륭한 신학자로 평가를 받았던 박윤선 박사는 고려신학교에서 15년 동안 자신의 전공과목인 주경신학 뿐만 아니라 변증학, 조직 신학(구원론, 말세론, 교회론), 성경 신학, 성경 원어(헬라어와 히브리어), 칼빈주의 5대 교리 등 신학 전반에 걸쳐서 강의에 혼신을 다함으로서 고신신학의 개혁주의적 기초를 확고히 놓았다.[17] 그리고 Herman Bavinck와 Abraham Kuyper의 개혁주의 신학에 깊히 심취해 있었던 박윤선 박사는 그 누구보다도 칼빈주의 사상을 가장 정확하게 한국에 소개할 수 있었다.

3. 고신신학의 발전

화란의 자유대학교는 Abraham Kuyper가 개혁주의 신학의 원리에 기초하여 대학교육과 학문 연구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설립한 기독교 대학이었다. 그 자유대학교에서

---

11)박용규. *op.cit.*, p.114; 차영배,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신학과 한국신학," 「개혁사상」, pp.76-77: 박윤선 박사의 이러한 신학적 차별화는 로마교, 재세례주의, 신비주의 등에서 표방하는 초자연주의를 거부하였던 Herman Bavinck의 반초자연주의(anti-super naturalism)에 기초한 것이었다.

12)박용규, *op.cit.*, pp.100-102 ; cf.이형기,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과 한국신학," 「개혁사상」 (1989, 창간호),p.31.

13)James D. Bratt, "화란 개혁주의 학파", 「웨스트민스터 신학과 화란 개혁주의」, p.128.

14)박종칠, *op.cit.*, p.169.

15)Cf. 권성수, 「성경해석학」 (서울 : 총신대 출판부,1991), pp.217-218 : 그 외에도 박윤선 박사는 칼빈주의 관점에서 공산주의, 정치, 국가 등에 대한 글을 그의 성경주석 등에서 발표했다. 참고 : "공산주의와 기독교," 「성경주석 사도행전」 (서울 : 영음사,1988), pp.115-118 ; "유물사관의 오착,"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서울 : 영음사,1989), pp.502-503 ;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정치," 「성경주석 잠언」, pp.126-129 : "인간의 자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서울 : 영음사, 1989), pp.128-130. ; "국가와 교회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pp.201-201 ; "기독교 신자와 국가," 「성경주석 로마서」 (서울 : 영음사,1987), pp.366-368.

16)정성구, 「칼빈주의 사상대계」, p.142 : 1937년 함일돈 (F. E. Hamilton)이 칼빈주의를 소개했으나 칼빈과 칼빈주의에 관한 글들은 15편 정도로 주로 선교사들에 의한 에세이 종류에 불과하였다.

17)정성구, 박윤선 목사의 신학과 설교 연구, 「신학지남」 (1991, 여름호), p.16 ; 남영환, "은사 박윤선 목사님의 성역 50년을 기하여," 「경건과 학문 : 정암 박윤선 목사 성역 50년 기념논업」 (서울 : 영음사, 1987), p.50 ; 박윤선, "고신 초대 역사론 회고함," 「월간고신」 (1983. 8), p.14.

박윤선 박사가 연구하고 돌아온 이듬해인 1955년에 고려신학교 교수회는 한명동 목사의 제안으로 고신의 개혁주의 신학의 실천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다. 그 결정은 "칼빈학원"을 설립하여 고려신학교 예과 2년 과정을 4년제 인문대학 과정으로 독립하여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칼빈학원은 고려신학교가 박윤선 박사와 더불어 그동안 추구해 온 개혁주의 신학의 교육적 이상을 구체화한 열매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칼빈학원의 설립은 Abraham Kuyper의 영향을 받은 미국 개혁파 교회들처럼 교회의 제도적인 벽을 넘어 인간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개혁주의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칼빈주의적 이상과 열망에 의한 것이었다. 박윤선 박사를 중심한 고려신학교의 지도자들은 1930년대 이후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이 폐쇄주의와 반문화주의로 흐른 나머지 주변 사회와 문화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던 것을 정확히 간파할 수 있는 분명한 역사의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칼빈학원의 설립을 통하여 단순히 신학 예과과정의 인문 교양교육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장차 개혁주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개혁주의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유능한 기독교 인재들을 양성하려고 하였다. 부산 칼빈학원은 진정한 기독교 대학을 실현하고자 하는 오늘 고신대학교에로의 첫 발걸음이었다. 당시 설립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칼빈학원의 역사적 모델은 1559년 Calvin이 설립한 제네바 아카데미(Geneva Academy)였다.[18] 그리고 제네바 아카데미는 그 설립 동기, 교육 목적, 교육 내용, 교수진, 그리고 학생 지도 등에 있어 우리 고신대학교가 추구해야 할 기독교 대학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19]

1960년 10월 박윤선 박사가 고려신학교를 떠난 이후 1961년부터 연이어 그의 제자들인 홍반식 박사, 오병세 박사, 이근삼 박사가 미국과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을 수학하고 돌아와 고려신학교 교수로 취임함으로써 고신신학은 새로운 발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홍반식 박사는 칼빈 신학교에서, 오병세 박사는 카바난트 신학교와 콘콜디아 신학교에서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을 수학하고 돌아와 주경신학과 성경신학 분야에서 고신의 개혁주의 신학을 더욱 심화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근삼 박사는 1957년 미국의 카바난트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Cornelius Van Til 밑에서 변증학을 연구함으로서 미국 장로교의 개혁주의 신학을 수학하였다. 그리고 1958년부터 약 5년간을 화란의 자유대학교에서 Herman Bavinck 이후 당 시대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교의학자인 G. C. Berkouwer 밑에서 연구하여 교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특히 이근삼 박사는 미국 개혁파 교회들의 노력을 통하여 이미 경험한 바 있는 Abraham Kuyper의 언약 사상과 왕국 사상의 구체적 실현과 그 놀라운 열매를 화란 유학 기간 동안 직접 확인하고 그 사상적 원리들을 체득할 수 있었다.[20] Abraham Kuyper는 언약사상을 개혁주의 신학의 본론으로 재도입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를 언약 관계로 이해하였다.[21] 이 언약 관계는 윤리적 관계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이 처한 사회와 역사적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확고하게 뿌리를 두고 오직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근삼 박사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서 인간의 문화적 사명을 설명하였다. 문화적 사명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언약 즉 창조 시에 주신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정복하라는 명령과 그것에 복종하는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언약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구조에서 이탈한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적 사귐을 다시 회복하게 함으로서 인간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

18)「고신대학보」, 제106호 (1986,3.17).
19)Cf. J. L van der Walt, "The school that Calvin established in 1559," *Our Refomational Tradition*, PU for CHE, 1984, pp.300-338.
20)Cf. James D. Bratt, "화란 개혁주의 학파" 「웨스트민스터 신학과 화란 개혁주의」, pp.123-125.
21)서철원, "카이퍼의 개혁사상과 한국신학," 「개혁사상」 (1989,창간호), pp.68.

적 통치가 새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문화적 변혁을 이룩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이근삼 박사는 이러한 개혁주의적 문화관을 고신대학교가 지향하는 기독교 대학의 신학적 기초로서 제시하였다.[22] 그리고 Abraham Kuyper는 자신의 왕국 사상에 근거하여 학문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왕권을 확립하려고 1880년 암스테르담에 자유대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는 모든 학문을 개혁주의 신학의 원리들 위에 기초하게 함으로 자유대학교가 설립된 후 반세기 경에 기독교 철학을 수립하여 기독교적 학문의 가능성을 입증하기도 하였다. 이근삼 박사도 개혁주의 신학을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왕권이 생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는…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으로 이해하였다.[23]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회의 모든 문화적 구조를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 순복하는 문화적 구조로 변혁시키는 개혁주의 신학의 문화적 사명을 항상 강조하였다. 이러한 개혁주의 신학의 언약 사상과 왕국 사상에 기초한 이근삼 박사의 신학을 허순길 박사는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하였다.

> 그는 미 대륙의 장로교 세계의 개혁주의 신학과 유럽 대륙의 화란 개혁교회 세계의 개혁주의 신학 양자를 흡수 소화하는 가운데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의 생활이라는 것을 남달리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의 신학은 두뇌에만 간직된 메마른 이론 신학이 아니고 마음에 정착되고 생활을 지배하는 산 신학이었다.…그는 교의학자로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믿고 강조한 개혁주의 신학자였다. 나아가 그는 개혁2주의 문화 신학자로서 선명한 기독교 문화관을 가지고 여러 논문과 역서를 통해 바른 기독교 문화창달에 열성을 쏟아 왔었다.[24]

이근삼 박사는 박윤선 박사 이후에 미국과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 양자를 모두 소화함으로써 보다 성숙하고 발전적인 개혁주의 신학을 1962년부터 칼빈학원장과 고려신학교의 교수로서 한국교회에 전수하기 시작하였다. 이근삼 박사는 박형룡 박사와 박윤선 박사의 뒤를 이어 조직신학(교의학)을 강의하였고, 특히 칼빈의 신학과 개혁주의 사상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통하여 개혁주의 신학과 사상을 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원리들을 고신대학교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왔다. 이근삼 박사의 「칼빈·칼빈주의」(1972), 「개혁주의 신학과 교회」(1985), 「개혁주의 신앙과 문화」(1991) 등의 저술들 속에 나타난 개혁주의에 관한 많은 연구논문들과 글들은 한국의 칼빈연구와 개혁주의 신학을 위한 귀한 학문적 공헌을 하였으며, 고신교회와 고신대학교의 개혁주의적 신학과 사상의 발전을 이룩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4. 결론 : 고신신학의 과제

고신신학은 구라파의 개혁주의 전통을 수용한 이차적인 미국의 신학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한계를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을 통하여 극복하고 한국의 특유한 교회적 상황 속에서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 시켜온 정통 개혁주의 신학이다. 이러한 고신신학의 시작과 발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개혁주의 교회건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개혁주의 세계건설을 위한 꿈과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다. 자연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또 다른 한 극단인 초자연주의에로 기울어짐으로서 영육 이원론의 경건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극복하고 우리는 개혁주의적 학문과 문화의 창달을 통한 개혁주의 세계건설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지향해 올 수 있었다.

고려신학교와 칼빈학원으로 부터 시작한 오늘의 고신대학교는 개혁주의 세계건설이라고 하는 개

---

22)이근삼, 「개혁주의 신앙과 문화」, pp.108-113, 165-167, 304-305.
23)이근삼, 「개혁주의 신앙과 문화」, pp.99, 145.
24)허순길, "이근삼 박사의 은퇴에 즈음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산: 고신대학교 출판부, 1994), p.29.

혁주의의 신학적 이상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고신의 노력이며 열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혁주의를 주창하는 오늘 우리 교회가 유감스럽게도 지난날 미국의 신근본주의의 오류와 마찬가지로 자기 폐쇄적인 부정적 사고와 도피주의에 빠져서 교리적 축소주의와 방법적 편협주의를 지향하려고 하는 경향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개혁주의의 풍요한 유산을 단순히 교리적 또는 신조적 체계 안에만 묶어 두려는 발상과 시도들을 경계해야 한다.

고신신학은 한국의 어느 장로교회 보다 정통 개혁주의의 정신과 원리를 따라 세상을 변혁할 수 있는 문화 변혁자들의 양성에 앞장 서왔다. 고신대학교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으로 칼빈주의 세계건설을 위한 기독교대학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교육적 또는 학문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우러 오는 대학은 한국에 매우 드물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선배들이 물려 준 아름다운 개혁주의적 신앙의 터 위에 개혁주의 교의학의 열매로서의 성경적인 문화신학을 수립하여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의 광장으로 변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개혁주의 세계건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의 위치와 사명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한 그 나라의 도구와 종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교회신학이 교회 그 자체의 이기적인 동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교회와만 관련하여 사유화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의 주권자이시며 그의 왕국이 우주적인 차원을 갖고 있음을 실제적으로 인정하지 아니 하려고 하는 잘못에서 떠나야 한다. 그것은 고신신학이 추구해온 개혁주의 신학의 정로가 아니다.

고신대학교는 기독교대학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기독교적 학문연구에 기초한 기독교적 고등교육과 기독교적 문화창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유능한 기독교적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공동체이다. 이러한 기독교대학을 통해 배출되는 기독교적 인재들은 사회적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꾼과 참된 문화의 건설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목적 있는 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들은 장성한 교회들로서 문화적 사명을 수행하는 이러한 기독교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것은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길이요 개혁주의 신학의 이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머리이자 동시에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확장해 가는 구체적인 순종의 행위이기 때문이다.